

이 보도자료는 2024. 7. 2.(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지영
전화 032-860-4340

2024. 7. 2.(화)

[주책임자]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박성민 (032-860-4202)

'지게꾼', '드라퍼' 등 해외 마약밀반입 조직 엄단

- 캄보디아 發 필로폰 밀수 조직 수사 결과
총 16명 구속기소, 3명 적색수배, 필로폰 약 15kg 압수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캄보디아 發 필로폰 밀수 범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경찰,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 '23. 12.부터 '24. 6.까지 필로폰 약 21,362g, 케타민 약 1,492g, 합성대마 약 2,300g을 국내로 반입한 4개 조직 마약 밀수조직원 19명을 적발(내국인 14명, 외국인 5명)하여 1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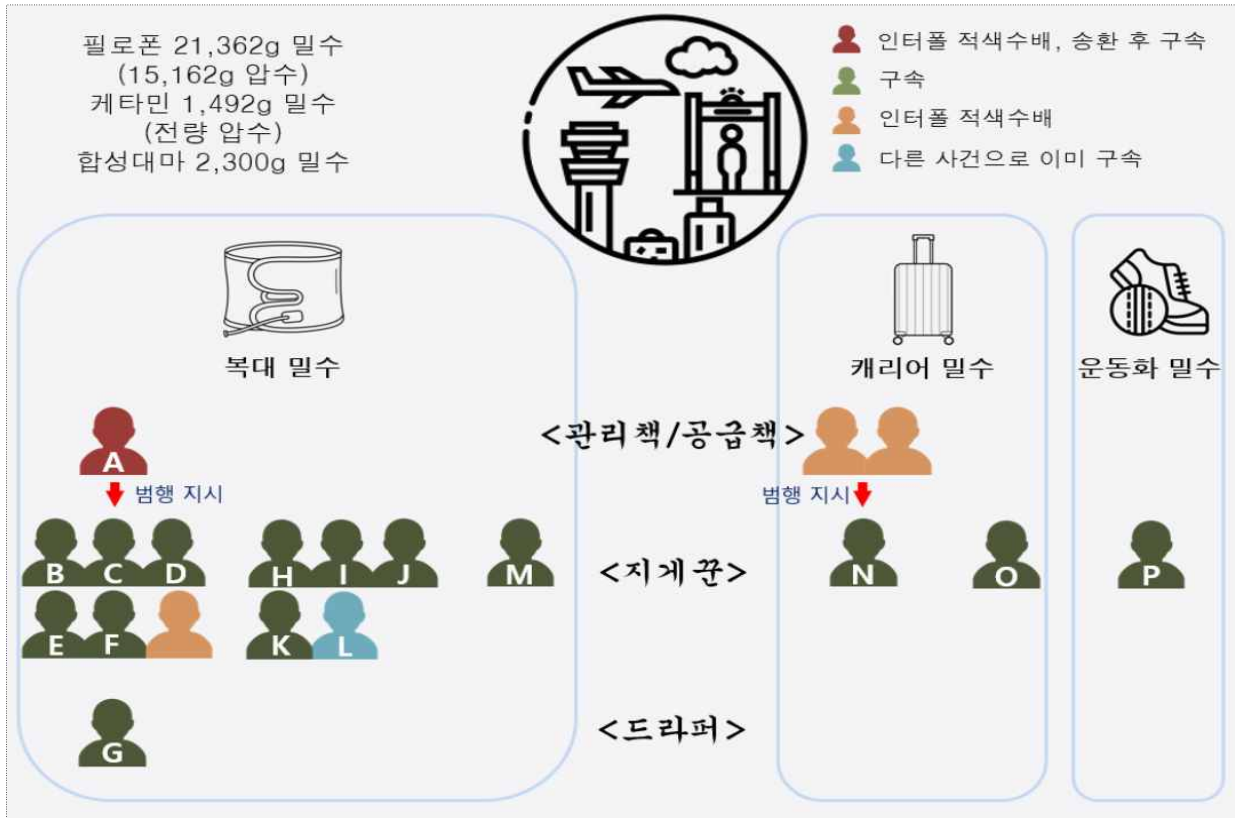
위와 같이 밀수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합계 약 70억원에 이르고, 밀수한 필로폰 21,362g은 총 71만 2천명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1회 투약분 0.03g 기준)임

- 수사과정에서 인천지검은 세관, 경찰, 국정원, 캄보디아, 베트남 현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수 운반책(일명 '지게꾼') 총 14명을 적발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밀수 범행을 지시한 지게꾼 모집·관리책을 해외 출장 조사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하여, 국내 송환 후 구속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발송책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인천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밀수사범을 엄단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범행구조도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총 16명 기소(15명 구속, 1명 별건 구속)

※ 피고인들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 (23세)	총책 (범행 지시)	▶'23. 7. ~ '24. 1. B, C, D, E, F와 각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kg 밀수	'24. 5. 28.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 인터폴 수배 통해 베트남에서 송환
2	B (43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3. 12. 14.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45g 밀수	'24. 1. 4. 구속 기소 (24. 3. 14. 징역 5년 선고)
3	C (19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3. 12. 23.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77g 밀수	'24. 1. 11.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4	D (34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4. 1. 13.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96g 밀수	'24. 1. 31. 구속 기소 ('24. 5. 2. 징역 7년 선고)
5	E (34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3. 12. 8.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kg 밀수 ▶ '24. 1. 26.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96g 밀수	'24. 2. 14. 구속 기소 ('24. 5. 23. 징역 7년 선고)
6	F (32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3. 12. 15.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kg 밀수 ▶ '24. 2. 8.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kg 밀수	'24. 2. 23. 구속 기소 ('24. 5. 23. 징역 6년 선고)
7	G (29세)	드래퍼 (국내 유통)	▶ '23. 12. 18. B가 밀수한 필로폰 1,045g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침	'24. 1. 4.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8	H (19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4. 1. 27. J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합성 대마 2.3kg 밀수 ▶ '24. 2. 10. I, J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202g, 케타민 1,482g 밀수	'24. 2. 28.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9	I (19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4. 2. 10. H, J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202g, 케타민 1,482g 밀수	'24. 2. 28.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0	J (19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3. 12. 28. K, L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2kg 밀수 ▶ '24. 1. 27. H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합성 대마 2.3kg 밀수 ▶ '24. 2. 10. H, I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202g, 케타민 1,482g 밀수	'24. 4. 15.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1	K (38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3. 12. 28. J, L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2kg 밀수	'24. 6. 27.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2	L (31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3. 12. 28. J, K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2kg 밀수	'24. 7. 2. 추가 기소 (다른 사건으로 구속 1심 재판 중)
13	M (29세)	지계꾼 (밀수 운반)	▶ '24. 2. 25.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95g 밀수	'24. 3. 14.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4	N (34세, 조선족)	지계꾼 (밀수 운반)	▶ '24. 1. 12.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3,728g 밀수	'24. 1. 30. 구속 기소 ('24. 4. 18. 징역 9년 선고)
15	O (26세, 말레이시아 국적)	지계꾼 (밀수 운반)	▶ '23. 12. 25.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3,857g 밀수	'24. 1. 11. 구속 기소 ('24. 4. 11. 징역 8년 선고)
16	P (37세, 조선족)	지계꾼 (밀수 운반)	▶ '24. 4. 8.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366g 밀수	'24. 4. 25. 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2

주요 수사경과

- '23. 12. 15.~18. 인천지검, 관련 첩보 입수하여 B, G 검거
- '23. 12. ~ 2. 인천공항본부세관, 캄보디아 發 필로폰 적발, 인천지검 C, D, E, F, N, O 각 검거

B~F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밀수 조직의 범행인 정황 확인, 디지털포렌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리책 A의 신원을 특정하여 인터폴 적색수배

- '24. 2. 10. 인천공항본부세관, 캄보디아 發 필로폰 약 1,202g, 케타민 약 1,482g 적발, 인천지검, H, I 각 검거
- '24. 3. 28. 인천지검, J 검거

'24. 3. 14.~21. 검찰수사관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하였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H, I의 공범인 J 특정하여 검거

- '24. 2. ~ 4. 인천공항본부세관, 캄보디아 發 필로폰 적발, 인천지검, M, P 각 검거
- '24. 5. 9. 인천지검, A 검거 및 송환

A는 '23. 10.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도주 중인 상황에서 경찰, 국정원과 협업하여 소재지 파악하고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베트남 현지 이민국의 협조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 후 송환

- '24. 6. 27. 인천지검, K 구속 기소(6. 12. 구속)

H, I, J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공범 K, L을 특정하여 체포영장 통해 검거

- '24. 7. 2. 인천지검, L 기소(다른 사건으로 구속)

3

수사결과 및 사건 특성

▣ 일반인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

- 과거 마약류 밀수는 마약 사범들의 인맥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보안 SNS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반책(지계꾼)을 모집하여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게꾼 F와 모집·관리책 A의 실제 텔레그램 대화내역]

지게꾼 : 당일지급 고액알바 광고 보고 연락드립니다.

모집책 : 지게(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는 일) 후 묻는 작업까지 하실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당 1000 드리구요 경비랑 비행기표는 1000에서 예외로 저희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몇년째 같은 방법으로 들고 있는만큼 위험성이 높지 않구요 지게분의 안전이 곧 저희의 안전이기 때문에 절대 걸리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지게꾼 : 일단 해외 나가는 일이면 여권도 그렇고 일정도 봐야할거 같네요. 할 의향은 있습니다.

※ 지게꾼과 모집책의 대화 시작 부분으로, 마약 밀수 일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처음 공모할 때부터 적나라하게 제안·수락

-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약 밀수 조직은 한두 번만 범행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지게꾼들이 적발되어 구속*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소모품처럼 이용,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음

* 가액 5,000만 원 이상 마약류(필로폰 500g 이상)를 밀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임

지게꾼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하고, 마약 밀수에 성공하더라도 지게꾼에게 약속한 범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위 '먹튀'하는 경우도 많음
→ 지게꾼에게 총책, 관리책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기에 지게꾼은 경제적 보상이나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임

▣ 10대 마약 밀수사범 증가 추세

-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지게꾼 중 내국인 11명은 모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지게꾼 중 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그 중 1명은 심지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이었음
-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조직원 모집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밀수조직에 이용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마약 밀수 방법의 다변화

- 마약류 밀수 범행은 갈수록 전문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세관 적발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수법을 수시로 변경하며 교묘히 진화하고 있음
- 지게꾼들은 ① 필로폰을 복대에 은닉하여 복부에 착용하거나, ② 캐리어 내부 벽에 필로폰을 부착한 다음 플라스틱 판을 덧대거나, ③ 신발 밑창을 파내어 필로폰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공항검색을 피해 필로폰 약 21kg 등을 밀수하였음

△ 복대 은닉 방식 필로폰 밀수 조직의 경우 텔레그램에서 대규모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전문 판매상들과 연계하여,

- ①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지게꾼들을 모집하고, ② 지게꾼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를 야산 등지에 파묻은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하여 보고하게 하고, ③ 출입국 내역이 여러 차례 누적된 지게꾼에게는 상위 직급(모집책, 관리책)을 부여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화된 수법으로 범행하였음

△ 캐리어·신발 은닉 방식 필로폰 밀수 조직의 경우 국내·외 조선족들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본건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필로폰 캐리어 밀수 관련 상선*은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공급책과 동일인이었음

- * 국정원, 검찰, 경찰, 캄보디아 경찰 공조에 따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체포되었음, 체포 과정에서 필로폰 약 700g과 제조 설비가 압수되어 우선 캄보디아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예정임

4 수사회의

▣ 검찰·세관 집중 감시 통한 마약류 국내 유입 사전 차단

- 인천지검은 세관과의 공조수사로 '23. 12. 15.경 필로폰이 은닉된 복대를 착용하고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지게꾼을 긴급체포하였고, 위 지게꾼을 조사한 결과 전문적인 마약류 밀수 조직이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 범행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음
- 이에 인천지검·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마약 밀수 동향, 범행 수법, 우범자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캄보디아 發 필로폰 밀수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음

- 그 결과 4개월 만에 캄보디아 發 마약 밀수 지게꾼 10명을 입국장에서 순차 검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약 15kg(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50만명 투약분), 케타민 약 1.5kg(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3만명 투약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압수하였음

위와 같은 집중 감시로 인해 지게꾼 방식의 캄보디아 發 마약 밀수 적발이 급격하게 감소함 ('23. 12.부터 '24. 2.까지 9명 → '24. 3. 이후 1명)


▣ 국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해외 체류 중이던 관리책을 검거·송환하고, 추가 공범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하였음

- 인천지검은 지게꾼 5명을 연달아 검거하여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 범행인 정황을 파악하였고, 관련 기록을 분석하고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지게꾼 관리책 A의 신원을 특정하였음
- 그리고,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A의 특정 국가 체류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A를 검거·조기 송환하여 구속하였음
- 또한, 캄보디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캄보디아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추가 공범 J를 찾아내어 구속하고, 관련 공범들을 인터폴 적색수배하였음

5 향후 계획

- 국경을 넘어 마약을 밀수·유통하는 범죄 조직은 인류 공동의 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무역항을 관할하는 인천지검은 마약과의 전쟁 선봉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특히, 마약류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하여는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에서는 마약류 밀수출, 대량 유통 범죄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 선고·집행하고 있음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는 앞으로도 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 본건 관련 마약 유통·판매책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수법의 마약밀수까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마약 공급책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 인천 지역 유관기관 마약수사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22. 1. 발족하였고, 현재 인천지검, 인천경찰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중부지방해경, 국정원, 해군이 참여하고 있음

[별첨1]

- 관련 영상, 사진 자료 -

별도 영상 재생 프로그램 구동하지 않아도 더블클릭 시 재생됨

<인천지검 마약수사과 촬영 영상>

- 지게꾼이 복대에 은닉된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야산에 파묻기 위하여 10개로 소분 포장한 박스를 개봉하는 장면



<필로폰이 은닉된 복대 및 착용 상태 촬영 사진>

- 지계꾼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복대를 수령한 이후, 상선에게 인증, 보고하기 위하여 복대 및 착용 상태를 촬영한 사진



<필로폰 소분, 포장 사진>

- 지계꾼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복대를 수령한 이후, 야산에 파묻기 위하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한 다음 촬영한 사진

<필로폰 포장 연습 동영상>

- 지계꾼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밀수입 필로폰을 포장하는 과정을 미리 연습하는 장면

<필로폰 은닉 장소 촬영 동영상>

- 지계꾼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야산에 필로폰을 파묻은 후, 필로폰 은닉 장소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동 경로를 촬영하는 장면



<필로폰 은닉 사진>

- 지게꾼이 모종삽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담긴 필로폰을 야산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조사과 촬영 영상>

- 지게꾼이 반입한 캐리어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하기 위하여 부착한 이중벽을 해제하는 장면



<캐리어 은닉 필로폰 사진>

- 지게꾼이 반입한 캐리어 내부에 덧댄 이중벽을 해제하자 그 안에 필로폰 약 3,728g이 은닉되어 있는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조사과 촬영 영상>

- 지게꾼이 반입한 운동화 밑창을 절단하자 그 아래에 은닉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면